

민주, 다음달 2일 선대위 발족...대규모 행사로 기선 제압

상임선대위장 외부 영입 검토 개방·미래형 플랫폼 콘셉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2일 내년 대선 선대위를 발족, 선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 이는 같은 달 5일 국민의힘 후보 선출 이전에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규모 선대위 출범 행사를 열어 기선 제압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27일 "다음 달 2일 오후에 선대위를 출범하기로 했다"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어 그에 맞게 대규모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대위 구성은 인선에 있어서는 '용광로', '통합', '개방'이 키워드이며 내용상으로는 미래형 플랫폼이 콘셉트다.

일단 당헌·당규에 따라 상임선대위원장은 송영길 당 대표가 맡을 예정이나 시간을 두고 외부 인사도 영입, 공동 상임위원장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외부 인사는 중도·포용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시간을 두고 모색할 예정으로 이번 선대위 출범은 '개문발차' 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상임고문에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참여한다.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해 당 상임고문들도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자연스럽게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명예 선대위원장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두관·박용진 의원 등 경선 후보가 맡을 예정이다. 여기에 당내의 중량급 인사의 추가 배치가 검토되고 있다.

이낙연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홍영표 의원, 정세균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광재·김영주 의원 등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내 통합과 다른 경선 캠프의 역량 흡수를 위해 이재명 후보 직속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정책 공약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함께 정세균 전 총리가 추진한 미래경제 위원회도 둔다는 방침이다. 이 두 위원회를 통해서 두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과 전문가 등을 집단으로 합류시킬 전망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이와 별개로 경선에



이재명 후보, 민주당사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앞줄 오른쪽)와 윤관석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승리를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했던 캠프 의원들을 적재적소에 전면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과 이 후보 측은 다른 경선 후보 측 의원들에게 중량상황과 전략, 조직,

정책, 홍보 본부장 등 주요 직책에 대한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후보 비서실장을 이낙연

전 대표측 박광은 의원에게 제안했으나 박 의원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경선 주자들과 연쇄회동 "원팀 만들어 승리하자"

정세균 당 선대위 상임고문 합류 추미애 "개혁저항 뛰어넘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선 주자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다. 이 후보는 경선 종료 이후 집거에 들어갔던 이낙연 전 대표와 24일 만난 것을 시작으로 경선 주자들과의 연쇄 회동으로 '원팀'을 부각하며 본선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정 전 총리를 만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 전 총리는 회동에서 이 후보의 요청을 받고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당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 두 사람은 또 정 전 총리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 30여 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선대위에 참여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후보는 정 전 총리의 공약 승계 차원에서 정 전 총리와 캠프 의원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경제 위원회를 후보 직속 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만찬에 앞서 이 후보에게 "이 후보가 승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잘 계승되기를 바라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이 많다"며 "아마도 원팀을 만드는 일이 승리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꼭 원팀을 만들어서 필승하도록 노력합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당원들의 염원과 개혁·민생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뜻에 맞춰 정권을 재창출하고 4기 민주 정부에서 좀 더 새로운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총리님이 함께 해주시고 큰 역할 해주시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27일 추 전 장관과 오찬 회동을 하고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 후보와 추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의 한 중식점에서 만나 지난 경선 과정을 회상하고 4기 민주 정부 창출 방안을 협의했다.

추 전 장관은 "한 110일 간의 경선에서 메시지를 필요할 때 잘 던진 것 같다"며 "자화자찬 같지만 제가 참여를 안 했으면 개혁을 실행시킬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우리의 이성을 더 연마시켜서 대전환의 세상에서

어떤 토대를 뉘느냐는 과제가 있다"며 "개혁 저항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시야를 가져야 하는 때다. 그래서 이 후보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추 전 장관이 개혁 화제를 많이 말씀해주시 제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화답하고는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장관님이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 후보는 특유의 유연성과 위트, 마음의 넉넉함으로 어려운 말을 쉽게 잘한다"며 "용광로 선대위를 다시금 상기하면서 그(선대위) 규모를 더 크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박용진 후보가 (경선에서) 한 여러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장을 넓게 쓴다'였다"며 "그런 측면에서 선대위 구성을 해야겠다. 이제 작은 고개를 넘었는데 더 큰 고개를 더 협력해서 잘 넘도록 하겠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 걸린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이번 국감을 보고 많은 분들의 의문점이 풀렸다"며 "뒤편이 어거지를 부려도 진실은 솟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손준성 영장기각에 "면죄부 아니다"

윤석열 공수처 공격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범죄혐의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공수처의 칼끝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할 뻔 했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안타깝다"면서도 "영장 기각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혐의는 뚜렷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분명한 것은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서 "영장이 기각돼 아쉬운 면이 있지만, 기각 사유가 어떤 사실

관계에 관한 부분이나 법리적 판단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며,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 정의와 배치되는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날 당 유튜브 방송에서 "법원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생기면 인권 친화적이고 구속요건을 엄격하게 따진다"면서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가혹하게 영장을 발부한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방송에서 "수많은 사건의 연결고리인데 왜 손준성 영장을 기각하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하태경, 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맡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전 총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 이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다 잘 해낼 후보는 윤석열"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그동안 소위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하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택한 데 대해 "솔직히 쉽지 않은 시간 이었고, 고민을 아주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그

는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세 불리기를 '줄 세우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같은 정치 동지들을 폄하하는 행위"라며 "제가 누구 옆에 줄 설 사람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2030 세대 민심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히며, 지난 1·2차 예비경선에서 홍 의원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다. /연합뉴스

靑 사회통합비서관에 영암 출신 김영문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53)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영암 출신의 김 비서관은 경희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 재정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냈으며 청와대에서도 성실한 업무 처리 등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박경미 대변인은 인사 관련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은 정부 출범 초부터 청와대에서 일하며 여러 경험을 쌓았다"면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원활한 소통 능력으로 사회통합의 현안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